



# 구윤철 부총리, 외환시장 개혁 관련 금융기관 간담회 주재

- 24시간 개장 및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준비상황 점검 및 차질없는 추진 당부
- 금번 외환시장 개혁은 외환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획기적 조치로서 원화 국제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되는 의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5.12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시중은행·외은지점의 은행장 및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환시장 개혁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7월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및 내년 1월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가동 등 주요 외환시장 개혁 과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은행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참석 기관 : 한국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Citi은행, HSBC은행

구 부총리는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및 역외 원화결제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지해 온 외환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획기적 조치”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선진시장 수준으로 제고하고 원화 국제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될 것”이라 강조하였다.

\* (현재) 은행간 시장의 원-달러 외환거래는 09시~익일 02시까지 가능 → (개선) 24시간 가능

\*\*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 증권 투자시 통상 국내에 계좌가 있어야 하고 원화를 대출받기는 어려움  
→ (개선) 국내 계좌 없이 현지 외국 은행의 계좌로도 우리 증권 등 투자 가능, 원화 차입도 가능

특히 구 부총리는,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및 역외 원화결제는 산업경쟁력 제고, 국채의 선진지수 편입(WGBI), 견조한 대외건전성 강화 등 업그레이드된 경제 체급에 맞게 외환시장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투자하고자 하는 글로벌 투자자의 수요에도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치로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고 우리 금융기관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 강조하였다.

참석자들은 외환시장 개혁 과제의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등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시장에 투자하지 않던 신규·잠재 고객들도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문의해 오고 있다면서 우리 외환시장 개혁 방안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높고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는 점을 전달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안에 맞춰서 은행 내부의 인력, 업무 프로세스와 IT 시스템 등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및 역외 원화결제 등 제도 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시행 및 안착되도록 은행내 인적·물적 자원의 배정 및 IT 시스템 개발 등에 최대한의 역량을 투입해 적극 추진해 주기를 참석은행들에게 재차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도종록 (044-215-4730)
	외화자금과	담당자	사무관	이태운 (lty703@korea.kr)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이희곤 (044-215-4750)
	외환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류성열 (sung126126@korea.kr)

